

전국 태권 꿈나무 '빛고을' 광주서 기량 겨룬다

제27회 5·18기념 전국태권도대회 내일부터 8일간 빛고을체육관서 중·고생 2312명...11체급 토너먼트

전국의 태권도 꿈나무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앞두고 '빛고을' 광주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

제27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 시장기 전국 남·여 중·고교 태권도대회가 13일부터 20일까지 8일 동안 광주광역시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한태권도협회, 광주시, 5·18대회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시태권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남고부 737명, 남중부 840명, 여고부 334명, 여중부 401명 등 모두 2312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광주지역에서는 남고부 28명, 남중부 48명, 여고부 11명, 여중부 25명 등 모두 112명이 출전한다.

이번 대회 광주지역 출전선수 가운데 유력한 우승 후보는 제25회, 제26회 5·18 대회 1위,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라이트 미들급 각각 1위를 차지한 신예진(3년·상무중)이 꼽힌다.

2024년 제51회 중고연맹회장기대회 1위, 제54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 대회 1위, 제35회 문화체육부장관기 대회에서 플라이급 각각 1위에 오른 나정윤(3년·체육중)도 눈여겨볼 기대주다.

대회는 편급과 플라이급, 페더급 등 11체급(고등부 10체급, 중등부 11체급)으로 나눠 체급별 토너먼트로 치러지며, 전종별 전자동 전자호구(KP&P) 및 전자머리보호대를 사용한다.

경기시간은 1분30초씩 3회전으로 열린다. 중간 휴식시간으로 30초가 주어지며 3전 다승제 방식이 적용된다.

개인 체급별 1, 2, 3위에 메달과 상장이 수여되며, 각 부별 최다득점자(최우수선수)에게 상품권 50만원과 상장 및 트로

피가 주어진다.

부별 종합우승팀 지도자에게도 상품권 50만원과 상장, 트로피를 수여할 예정이다. 부별 단체우승팀 및 2, 3위 팀, 그리고 감투상과 장려상 등 단체시상도 이뤄진다.

전국의 태권 꿈나무들이 광주에 모여 '민주', '인권', '평화'의 5·18 광주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대회인 만큼 태권도 꿈나무 발굴은 물론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와 함께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지대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2300여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하면서 내수 진작 등 광주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35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과 정보제공을 통해 '오월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고, 광주와 호남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큰 역할

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개회식 식후행사로 조선대 태권도학과 학생 100여명이 참가해 '5월의 정신, 4월의 외침'이라는 주제로 '희망 광주' 공연을 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공연은 태권도 퍼포먼스 서사 공연으로,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되새기는 한편, 2025년 4월 계엄령 및 탄핵을 연결 짓는 등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강렬한 민족정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공연을 통해 광주시민들이 민주화를 위해 싸운 그날의 열망과 희생을 태권도의 역동적인 동작으로 표현해 당시 시민들의 용기와 외침을 상기시킨다. 이어 2025년 4월의 계엄령 및 탄핵사태에서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5월 정신을 되새김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켜낸 대한국민의 희망과 연대의 소중함을 부각시키게 된다.

윤용철 광주시태권도협회장은 "이번 대회는 1980년 5월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평화를 위해 군사 독재의 총칼에 맨몸으로 맞섰던 민주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한 뜻깊은 대회이자 올해로 27회째 '광주정신'과 태권도를 결합해 개최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라며 "8일 동안 열리는 태권도대회를 통해 광주정신이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이어져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마음속 깊이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겨루기 뿐만 아니라 품새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으며 K-태권도의 새로운 중흥을 선도하고 있다"며 "태권 성지'인 광주에서 아직 품새대회를 열지 못해 아쉽다. 빛고을 태권인들이 힘을 모아 광주에서도 품새 종목 전국대회가 반드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 cstone@jnilbo.com

'ERA 1위' 마저 무너져... 평균자책점

KIA 네일, SSG전 7자책



11일 더블헤더 첫 경기 4-8 패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KBO 평균자책 1위를 기록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의 선발 제임스 네일(사진)이 처참하게 무너졌다. 리그 입단 후 최다 자책인 7실점을 내줬고 1점대 평균자책도 무너지며 리그 5위까지 추락했다.

KIA는 11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SSG랜더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4-8로 패배했다.

이날 더블헤더 1차전 경기의 패배는 KIA 선발 네일의 부진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네일은 이날 더블헤더 1차전에 선발로 등판해 4이닝 8피안타 7실점(7자책) 4탈삼진으로 부진했다. 네일이 한 경기에서 7실점 이상 허용한 경기는 지난해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9실점·4자책)와 KT 위즈전(8실점·2자책)에 이어 세 번째다. 심지어 한 경기 7자책은 KBO리그 데뷔 후 처음 있는 일이다.

1회 1사 상황 박성환에게 안타를 허용했지만 최정에게 땅볼을 유도해 병살타로 이닝을 깔끔하게 마무리한 네일은 2회부터 강판됐던 4회까지 매 이닝 실점했다.

볼넷과 안타로 이닝을 시작하며 무사 1·3루에 몰린 2회말 최준우에게 중전 1타점 적시타를 허용했고, 김성현의 희생번트에 이어 조형우에게 2타점 적시타를 헌납하며 경기는 0-3이 됐다. 이어 3회말 2사 1루에서 맥브름에게 1타점 적시타를 내줬고, 또다시 볼넷으로 이닝을 시작한 4회말 1사 1루 상황 연이은 1타점 적시타와 희생 플라이로 3실점했다.

뒤늦게 KIA도 추격을 시작했다. 4회초 1사 만루에 밀어내기 볼넷으로 득점 신호탄을 알린 KIA는 5회초 최형우의 2점 홈런이 터지며 3-8이 됐고 5회말 1사 2·3루 SSG가 희생 플라이로 1점 달아났으나 6회초 KIA 변우혁이 1타점 적시타로 점수차는 4점차까지 좁혀졌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1사 1·2루로 득점권이었던 7회초 병살타로 이닝이 종료됐고 8회와 9회도 삼자범퇴로 마치면서 경기는 그대로 끝이 났다. **민현기 기자**

페퍼저축은행, 외국인 드래프트서 조 웨더링턴 지명

페퍼저축은행이 2025-2026시즌 V리그 여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사실상 1순위 지명권으로 조 웨더링턴(사진)을 지명했다.



트라이아웃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선수 중 하나다.

그는 페퍼저축은행으로부터 지명된 뒤 "재능이 많은 선수들 사이에서 상위픽으로 불릴 것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영광이다"며 "한국 배구가 훈련이 많고 강도가 세다는 것을 아는데 잘해낼 수 있을지 기대한다"고 말했다.

페퍼저축은행 페퍼스AI는 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 월드엘리트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배구연맹(KOVO) 여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웨더링턴을 지명했다.

앞서 1순위 지명권을 얻은 IBK기업은행이 빅토리아 덴자와 재계약을 진행하면서 2순위 지명권이었던 페퍼저축은행이 사실상 1순위를 행사해 웨더링턴에게 손을 건넸다. 키 184cm 2001년생으로 미국, 푸에르토리코, 그리스 리그에서 뛰었던 웨더링턴은 아포짓 스파이커로서 이번

페퍼저축은행은 웨더링턴 영입으로 공격력을 보강하며 새 시즌 반전을 노리며 전력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새 시즌 일정은 앞으로 V리그 사무국 발표에 따라 확정된다. **민현기 기자**



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팀 앵커 고승환(오른쪽·광주광역시청)이 10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릴레이선수권에서 38초56에 결승선을 통과한 뒤, 동료 이재성(광주광역시청)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광주시청 고승환·이재성, 남자 400m 계주 한국 신

2025 세계육상릴레이선수권 서민준·조엘진과 38초56... 4위 11개월만에 0.12초 기록 앞당겨

광주광역시청 육상팀 고승환과 이재성이 11개월 만에 남자 육상 400m 계주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서민준(서천군청)·나마디 조엘진(예

천군청)·이재성·고승환(이상 광주광역시청)으로 팀을 짰 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은 지난 10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릴레이선수권 남자 400m 계주 예선 1조에서 38초56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에서 이시몬, 김국영, 이용문, 고승환이 작성한 종전 한국 기록 38초68을 0.12

초 당긴 한국 신기록이다. 한국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은 한국 기록을 새로 썼지만 1조 6개 팀 중 4위에 머물렀다.

이날 예선에서 각 조 1, 2위에 오른 8개 팀(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독일, 폴란드)은 이번 대회 결선에 진출하며, 도쿄 세계선수권 출전을 확정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 수피아여고, 연맹회장기 농구대회 우승... 시즌 2관왕

광주 수피아여고 농구가 2025 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 시즌 2관왕의 쾌거를 이뤘다.

수피아여고는 9일 경남 통영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결승에서 삼천포여고를 85-41로 대파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수피아여고는 이번 대회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치며 전승 우승과 함께 3월 춘계 전국남녀중고농구연맹전 우승에 이어 올시즌 2관왕을 달성했다.

수피아여고는 C조 예선에서 마산여고

(77-46 승)과 선일여고(85-64 승)를 연파, 2승으로 조 1위를 차지하며 8강에 진출했다.

8강서 상주여고를 106-52로, 준결승서 온양여고를 81-65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수피아여고는 결승에서 삼천포여고를 상대로 44점 차 대승으로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가현(23득점 12리바운드 5어시스트 2블록슛)과 송지후(23득점 8리바운드 5어시스트)이 46점을 합작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임연서도 16점 21리바운드 8어시스트로 트리플더블급 활약을 펼쳤고 김담희도 11점 12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의 활약으로 지원사격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이근 임연서는 최우수선수(MVP)·득점상·어시스트상을 수상, 개인 3관왕을 차지했다. 임연서는 이번 대회 5경기에서 총 122득점(경기당 평균 24.4점), 42어시스트(평균 8.4개), 67리바운드(평균 13.4개)를 기록했다.

대회 우승의 지도력을 발휘한 김명희 코치는 지도상을 받았다. **최동환 기자**